2017학년도 서강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 자료집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 문제 1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3

▢ 평가자 채점 총평 5

▢ 모의논술 답안사례 평가 (1) 7

▢ 모의논술 답안사례 평가 (2) 10

■ **유의사항**
1. 본 온라인 모의논술은 인문·사회계열만 실시합니다.
2. 시험시간은 60분입니다.
3.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

1. [가]와 [나]에 나타난 현상을 [다], [라], [마]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바]를 참조하여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가] 스테이시 스나이더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2006년 봄만 해도 25살 싱글맘이었던 스나이더는 대학 과정을 마치고 교사가 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대학 당국의 호출을 받은 자리에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스나이더는 교사 자격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했으며 교생 실습도 마치고 상도 여러 차례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녀의 행실이 교사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행실'이라니? 해적 모자를 쓴 복장을 하고 플라스틱 컵으로 술을 마시는 인터넷 사진 한 장이 문제였다. 스테이시 스나이더는 이 사진을 그녀의 마이스페이스 웹페이지에 올려놓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술 취한 해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었다. 스테이시의 교생 실습 학교에 근무하던 지나치게 열성적인 한 교사가 해당 사진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드러내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대학 당국에 신고했던 것이다. 스테이시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 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마이스페이스 웹페이지는 검색엔진에 의해 이미 인덱싱되었고 사진은 웹 크롤러가 긁어가 보관 중이었다.

–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나] 2003년 3월 중국 광저우. 27세였던 쑨즈강은 경찰이 요구했던 임시 거주증과 신분증을 검문 당시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강제 수용된 지 3일 만에 구치소 진료소에서 사망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병이었지만, 부모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부검 결과 쑨즈강은 구타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쑨즈강의 부모는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보언론지인 〈남방도시보〉에 사건 취재를 의뢰했다. 취재 결과, 감금 중 구타로 쑨즈강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자, 〈남방도시보〉는 이 사건의 전모를 그해 4월 25일 자로 보도하였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남방도시보〉에 보도된 후, 중국 전역의 언론과 뉴스 사이트들이 잇따라 이 사건을 재보도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채팅과 게시판에도 중앙정부를 고발하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주하면서 이 사건은 삽시간에 이슈가 되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결국 중앙정부는 자체 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쑨즈강의 죽음에 연루된 12명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 래리다이아몬드·마크플래트너, 『소셜 미디어』

[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고도화된 전자망사회에서는 개인의 은행 및 백화점의 출입, 아파트 승강기의 사용, 관공서의 출입, 전화 행위 등 모든 정보들이 신속하게 중앙 DB에 탑재된다. 감시자는 노출되지 않고 멀리서 감시할 수 있다. 쌍방향의 정보 전달이 가능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사생활은 발생과 동시에 공적 영역으로 노출된다. 흔히 정보사회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형성되어 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파괴된다고 한다. 이는 사적 시공간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서 항상 노출 혹은 공개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라] 정보 검색은 정보 조각이 들어 있던 콘텍스트 없이 검색결과라는 새로운 맥락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미 정보를 탈맥락화시키거나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검색결과를 추적해서 정보의 근원에 이를 수 있으며 오리지널 맥락에서 그 정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책의 색인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찾는 것과 같다. 단지 한 문장이나 한 페이지만을 읽는 것으로는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없지만, 충분히 중요하다면 한 장 전체를 읽거나 책 한 권 전체를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 브리콜라주는 다르다. 브리콜라주는 오리지널 콘텍스트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원래 맥락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다. 디지털 브리콜라주에서 사진 한 장이 슬라이드쇼에 쓰이거나 누군가의 소설에서 한 문장이 채택되거나 노래에서 뽑은 음악 몇 소절이 사용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진과 문장과 음악 몇 소절이 애초에 사용되었던 맥락에서 오리지널을 찾을 그 어떠한 참고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마]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릴 적부터 인터넷을 접해, 인터넷에서 친구를 사귀고 놀고 공부한 세대이다. 그래서 인터넷 속에서 자라고, 인터넷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기를 세상에 표현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는 대중 지향적이며 자아의 표현에 충실하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문화가 독립적으로 발현한 독특한 예로 플래시몹을 들 수 있다. (중략) 플래시몹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공지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모여 약속된 행동을 하고 사라지는 일종의 네티즌 놀이이다. 이들은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며, 약속한 행동을 하고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플래시몹은 디지털 네이티브 사이에서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 조화순, 『디지털 거버넌스』

[바]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 보고 나누는 대화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기도 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실린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메신저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대화하는 등 매체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략) 매체가 발달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종이에 편지를 쓸 때와 전자 우편을 쓸 때를 비교해 보면 필자의 사고 과정이나 사고의 양상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매체 언어가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매체를 통한 소통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 파급이 크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 빠른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 예이다. 때로는 매체를 통해 쓴 글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과 작문 I 』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화법과 작문 I 〉 과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 중 하나는, 현대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점차로 전문화되어 가면서 개인의 소통 행위는 사회적인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과목에서는 소통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법과 작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2017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은 위와 같은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구안되었다.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곧 사고의 틀과 소통의 틀을 바꾸어 오곤 했으나, 최근 몇 년간의 디지털 기술은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네이티브이기도 한 수험생들이 각 제시문이 드러내고 있는 여러 단면들을 종합하여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소통 방식을 성찰하고, 현 디지털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제시문 [바]는 2009 개정 〈화법과 작문 I 〉 성취 기준 중 '작문 과정에서 매체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는지 이해한다.'와 '글의 전달과 사회적 파급력에 미치는 매체의 효과를 이해한다.'를 구현하고 있는 단원의 일부이다. 수험생들은 제시문 [바]를 통하여 작문 행위와 매체 언어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지식'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나머지 [가]~[마]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단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 디지털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적 소통 양상
◦ 제시문 [다] : 디지털 사회에서는 사적인 정보가 저장되고, 사적인 시공간이 공적인 시공간으로 재편성되며, 그 결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 제시문 [라] : 디지털 세계에서는 원 화자(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끊임없이 재맥락화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원래의 출처를 알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제시문 [마]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기성 세대와는 전혀 다른 소통 방식과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 채점기준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문제 상황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가?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문제 상황을 '디지털 사회 소통 양상'이라는 상위의 핵심어(혹은 그에 상당하는 어구)로 묶어서 인식하고, 서로 상반되는 양상임을 기술하고 있는가?
3) 제시문 [나]의 문제 상황을 민주주의 실현이나 네티즌들의 힘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는가?
4) 제시문 [다]를 제시문 [가] 및 [나]와 관련하여 해석(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파괴된 사회임을 언급, 사적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공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하고 있는가?
5) 제시문 [라]를 제시문 [가]와 관련하여 해석(디지털 세계에서는 원래 화자 또는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얼마든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유통될 가능성이 많음)하고 있는가?
6) 제시문 [마]를 제시문 [나]와 관련하여 해석(디지털 네이티브의 신속한 집결성, 불특정 다수와 목적

성을 지닌 집단행동의 가능성, 이러한 특성이 디지털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함)하고 있는가?

7) 제시문 [바]에 나타난 핵심 내용과 용어를 충분히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 평가자 채점 총평

채점위원들이 모의논술 답안을 채점하면서 느꼈던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상위 점수대에 걸쳐있는 학생들의 답안이 너무나 비슷했다는 사실이다. 이 학생들의 답안은 구성과 형식, 사용되는 어휘, 심지어 내용상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매우 닮아있었다.

사실 이 점수대의 학생들은 전체 응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문의 내용도 잘 이해하고, 글쓰기의 기본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의 글 임에도, 이 답안들이 더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번 모의논술 해설에서는 이처럼 중상위 구역의 답안을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답안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상위권 답안의 문제유형
► 표현과 형식상의 문제
① 논술 문항의 요구조건에만 의지한 기계적인 단락구성 ② 제시문에서 사용된 어휘의 반복적인 사용 ③ 요약할 부분 또는 강조할 부분의 구분 실패
► 내용과 주제 차원의 문제
① 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 ②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를 찾지 못함. ③ 하나의 통일된 글이 아닌, 개별 단락의 작위적인 결합 ④ 남과는 다른 자신의 독창적이고 진지한 사유를 보여주지 못함

중상위권 학생들의 답안들이 가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단락의 구성에 있다. 이 학생들의 답안 구성은 거의 예외 없이 문항이 나열된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제시문 [가]와 [나]를 분석하고〈1~2단락〉, [바]를 참조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3단락〉” 총 3단락의 형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락구성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출제자가 왜 이와 같은 순서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각 제시문이 전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문제의 조건에만 맞춰 답안을 쓴다면, 그런 답안 속에 나만의 깊은 사유가 담길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가령, 2017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에서 출제자의 중요한 의도를 정리하면, [바]에 제시된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형성의 차이와 그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각각의 제시문을 ‘디지털 매체 시대의 소통양상과 그 사회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재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인 정보와 소통이 공적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제의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단순히 [가]단락을 설명하고, [나]단락을 설명한 뒤, 앞뒤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적는 식으로 답안을 구성할 확률이 높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를 찾지 못할 때, 흔히 학생들은 문제의 요구에 맞춰 답을 적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하기 때문이다. 건물을 올리는 일로 비유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짓는 것인지 아파트를 짓는 것인지 큰 설계를 그리지 않고, 무작정 층층이 쌓아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각 단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만 열거하는 이상한 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하나,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에서 발견된다. 중위권 구간의 많은 학생들은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요컨대, 그들은 제시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번 모의논술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맥락' '공적영역으로의 노출' '디지털 네이티브', '브라콜라주'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과 같은 단어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단어를 다른 어휘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말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맥락'이란 용어가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지칭하거나, '디지털 네이티브'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그것을 대체할 다른 말도 찾을 수 없다. '브라콜라주'를 인용하는 이유가 '더 이상 저자의 의도나 원본의 출처를 알기 어려운, 디지털 미디어 시대 정보의 특성'을 비유하기 위해서임을 모를 때, 학생들은 그 단어 자체가 핵심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채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안을 쓰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얼마만큼 학생 자신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풍성하다면, 그만큼 그의 생각의 방식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논술이란 주어진 제시문들의 의미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로부터 이끌어 낸 자신의 문제의식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는 글이다. 중상위권 점수대의 답안과 그 이상의 답안은 사실상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린다. 좋은 내용은 좋은 형식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다.

▢ 모의논술 답안사례 평가 (1)

[가]에서는 스테이시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대학 당국에 알려져 교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먼저 스테이시가 올린 사적인 사진이 다른 교사와 대학 당국에까지 공적으로 알려진 것은 [다]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 대학 당국과 다른 교사는 스테이시의 사진만으로 스테이시가 사진을 찍을 당시의 상황, 즉 오리지널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라]의 브리콜라주가 오리지널 텍스트와 분리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시가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아 스테이시는 [마]의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자아표현에 충실하고 대중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에서는 쑨즈강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과 달리 중앙정부의 재조사로 그의 죽음과 연루된 사람들이 죄를 치르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상황은 먼저 [마]로 설명할 수 있다. 쑨즈강의 부모님이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언론에 알렸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상황은 [다]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쑨즈강의 죽음이 언론에 한번 보도되자 다른 언론들이 잇따라 이 사건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쌍방향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매체소통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 따라서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된다. 이러한 특성은 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사회에 표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을 뜻한다. 이 의견들은 매체를 통해 퍼져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 반영된다. 또한 매체소통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매체의 특성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기회가 많아지고, 전과 다른 의미형성, 맥락을 파악할 기회도 많아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는 능력이 형성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이 글은 점수대별로 중간 구역에 속한 전형적인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답안에서 여러분은 앞의 총평에서 지적한 이 구역 답안의 오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논술 문항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에 의지한 기계적인 단락 구성

○ 총평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 글의 단락구성은 논술 문제의 요구조건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첫 단락에서 제시문 [가]를 [다], [라], [마]를 통해 설명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제시문 [나]를 [다]와 [마]를 통해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친다.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답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하나의 제시문을 여러 입장에서 분석하는 노력까지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단락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이 답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와 [나]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분석의 준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시문 [가]와 [나]를 제시문 [다]를 활용해 비교 혹은 대조하려 했다면, [가]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나]를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쌍방향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경우, [다]에서 언급된 현대 미디어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제시문 [가]와 [나]의 상황은 모두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 해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두 제시문은 ~라는 점에서 상반된다." 라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편,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논의한 내용이 셋째 단락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도 문제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인터넷 공간의 소통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이 글의 주장은 사실 앞의 두 단락에서 분석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논의에 해당한다. 이처럼 각 단락의 내용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정답을 맞히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답안에 깊은 생각을 담아낼 수도 없는 것이다.

2. 제시문에서 사용된 어휘의 반복적인 사용

○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말이 가진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다른 고민 없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첫째 단락에서, "브리콜라주가 오리지널 텍스트와 분리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 그 자체로는 제시문 [라]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브리콜라주가 무엇이고, 그것이 오리지널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제시문 [가]와 어떤 점에서 만나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스테이시는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자아 표현에 충실하고 대중지향적이었다"라는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무엇이고, 그것의 어떤 속성이 스테이시와 동일한 속성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 답안은 제시문을 반복해서 말할 뿐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셈이 된다.

3. 요약할 부분 또는 강조할 부분의 구분 실패

○ 이 글의 서술하는 방식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요약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 예를 들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에서는 쑨즈강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과 달리 중앙정부의 재조사로 그의 죽음과 연루된 사람들이 죄를 치르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불필요한 진술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문을 요약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적절한 요약의 방식이

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시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시 요약하는 것은 글의 경제성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이다.

○ 따라서 이 문장은 “이전이라면 사소한 사건으로 묻혔을 제시문 [나]의 쑨즈강 사건이 중앙 정부에 대한 공적 문제제기로 바뀔 수 있었던 까닭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성장 덕분이다”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글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나와야만 한다. 그래야 다음 문장에서 그보다 더 심화된 내용 분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앞서 총평에서 말한 것처럼, 글 전체를 관통하는 정확한 주제를 세우지 못한다면 불가능하다. 제시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 이 답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의 문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의 단위가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담은 문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흔히 이를 중심문장의 나열이라고 말하며, 글의 논리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기도 하다. 논술은 단순한 서술형 답안도 아니고, 그런 답들을 나열하는 글도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박한 것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논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이야 말로 좋은 논술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모의논술 답안사례 평가 (2)

제시문 [가]의 스테이스 스나이더는 '알 권리'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 그녀는 단순한 친목을 목적으로 술에 취한 모습을 인터넷에 표현하였다. 하지만 처음의 의도가 친구와의 친목이었어도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한 장만으로는 그 맥락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그녀의 사진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모습을 보여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후에 그녀는 그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그 모습을 없애려고 했으나 그녀가 사진을 업로드한 순간 홈페이지의 DB에 저장되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는 그 사진을 삭제하여도 인터넷 자체에서는 삭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잊혀지기에 실패한 것이다.

반면에 제시문 [나]의 쑨즈강 사건은 '알 권리'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맨 처음, 쑨즈강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것은 언론지였지만, 그 확산은 인터넷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세대들에 의해 중국 정부 또한 여론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진상규명에 힘을 쓰게 된다. 정부와 쑨즈강 부모간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되어 나타난 긍정적인 영향이다.

최근 사람들 간의 대부분의 소통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만난 남녀가 SNS를 통해 사랑을 키우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결혼을 하는 일도 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타 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쌍방형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와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이다. 게다가 파급력과 확산력이 높아서 평범한 시민의 말이어도 SNS 등을 통하여 부당함을 고발하는 말 등을 여러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 파급력 때문에 옳지 않은 정보나 경솔한 발언들도 널리 퍼지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인터넷 소통은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옳지 않은 발언들도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기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점수대별로 중~하 구역에 속한 전형적인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생의 답안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오류들이 쉽게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답안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

○ 2017학년도 서강대 모의논술의 출제의도는 디지털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적 소통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 사회의 보다 일반적인 문제로 확대 인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있다. 매체의 형식이 어떻게 소통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와 같은 소통의 방식이 오늘날 인간관계와 현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일은 이번 논술고사에서 학생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 하지만 제시된 답안의 경우, 그와 같은 출제의도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답안은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라는 하위 주제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답안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으로만 내용을 풀어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 '알 권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깊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제시문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채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답안은 제시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어느 한 부분만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2.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를 찾지 못함

○ 이것은 논술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한두 개의 읽기 쉬운 제시문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논하고 있는 제시문 [가]를 제시문 전체의 논제로 오해한 것이다.

○ 그러므로 이 답안은 앞의 출제의도와 평가기준에서 제시된 것처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문제 상황을 '디지털 사회 소통 양상'이라는 상위의 핵심어로 묶어서 내용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제시문 [가]와 [나]의 상황은 모두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소통 양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서로 상반된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논술 출제자가 제시문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다. 시험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어떤 큰 목적(출제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원리에 의해 사용된 것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문들을 함께 엮어서 읽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5~6개나 되는 제시문을 모두 엮어 읽어야한다니,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에서 제시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본다면, 그것들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힘들겠지만, 그와 같은 제시문 읽기의 연습은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된다.

3. 하나의 통일된 글이 아닌, 개별 단락의 작위적인 결합

○ 답안사례(1)에서도 언급된 문제지만, 학생 답안의 각 단락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답안의 경우, 앞의 두 단락과 마지막 단락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하나의 단락 안에서도,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 문장 차원의 문제도 있다. 마지막 단락을 보자. "①최근 사람들 간의 대부분의 소통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②심지어 인터넷에서 만난 남녀가 SNS를 통해 사랑을 키우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결혼을 하는 일도 있다. ③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타 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쌍방향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①~③ 문장은 학생 답안의 전체 흐름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전혀 필요가 없다. 특히,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이 답안에서, ①, ② 문장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다. 또한 ①, ② 문장의 원인으로 ③ 문장이 제시된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인터넷 매체의 특징인 접근성, 쌍방향 소통으로 인해, SNS를 통해 만난 남녀가 결혼까지 했다는 것은 명백한 논리의 비약이다.

4. 남과는 다른 자신의 독창적이고 진지한 사유를 보여주지 못함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출제자의 의도로부터 벗어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창적인 답안이란 이제까지 누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놓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이러한 생각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엉뚱한 주제를 시험문제 밖에서 찾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하기도 한다.

○ 논술고사가 학생들에게 그처럼 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논술고사에서 높게 평가 받는 독창적인 답안은, 학생이 자신의 문제의식(주제)에 대해 얼마나 깊게 천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 창의적인 생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문제를 얼마만큼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느냐가 나만의 독창적인 답안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자. 논술 고사는 글쓰기 천재를 찾는 시험이 아니다. 읽고, 생각하고, 다시 써보자. 그 노력이 결코 그대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니!